



##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함께 하면, 더 버틸 수 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 안에서 달리기하는 교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역 마라톤 클럽 코치들이 자원봉사로 교도소에 와서 지도하고, 수감자 50여명이 회원이 되었고, 20대부터 70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원 수감자들은 감옥의 작은 운동장을 105바퀴 달리며 목표를 향해 집중하며, 달리기 하면서 벽이나 소음 혹은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범죄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자신을 정의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사회에 포함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합니다. 마라톤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의 재범률은 0%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수감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실려 있으며,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장시간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사를 읽으면서 “사회에 포함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회에 포함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겠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와, 인적 교류와 지지와 격려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만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동료들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긴 거리, 힘든 시간 같이 달리면서 긴 시간,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버티는 시간에, 함께 하면 더 버틸 수 있으니.

우리 위원회가 수용자와 물리적으로 운동장에서 함께 달려줄 수는 없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이겠지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간헐 있는 수용자분들의 처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더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올려주는 것이겠습니다.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교리와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들이 이러한 공감과 관심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찰나의 동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 수용자 형제 자매들이, 우리 봉사자와 후원회원분들의 진심어린 함께 지속적 관심에 힘입어, 마침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 각 교정시설 부활 간식 지원



3월 27일(수) 서울남부교도소(1,400개), 28일(목) 서울구치소(3,600개), 서울동부구치소(3,000개), 29일(금) 서울남부구치소(2,000개)에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간식(커피, 구운 달걀)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교정 시설에서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며, 남다른 애정과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활 간식을 통해 모두가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3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4월 1일(월)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3차 정기총회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를 비롯한 정회원, 후원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3년 활동 및 결산과 2024년 예산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4월 2일 창립 54주년을 맞이하여, 10년 7명, 20년 4명의 장기봉사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감사장과 감사초 전달식과 신임 대표봉사자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헌신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도봉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4월 6일(토)~7일(일) 도봉동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의 신부님들은 강론을 통하여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도봉동성당 주임 신부님과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자금 약정식



4월 11일(목) 교정사목 센터에서 기쁨과희망은행 창업자금 약정식이 있었습니다. 창업자금 심사를 통해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창업자금 대출 지원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딛고 빛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 구치소 집회를 참석하며...

김경희 브리짓다 \_ 서울구치소 여사 봉사자

동생의 잘못을 계기로 시작한 구치소 집회 참석이기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남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생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고 삶의 회의감이 들다 보니, 수감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면서 그저 사람만 봤는데, 이제 그들의 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나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 피해자들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수감자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제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순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문득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수감자들의 죄를 비난하는 저 자신은 과연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들을 원망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로마 3, 10-12)

저는 고통과 상처를 핑계 삼아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선하고 수감자들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저는 동생을 비난하지 않고 감싸줬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의 죄를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기도할 수 있었고, 수감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던 구치소 집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 저를 기다려주고 지켜준 가족에게도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1)

정 OO\_ 2024년 창업 대출자

2024년 1차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성의를 다해 창업 대출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1차 창업 대출을 받게 된 백OO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 모두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이슈(코로나, 경제침체 등)로 인해 수감 전보다 취업이나 사회 정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특히나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취업은 더욱 어려웠고 수감 전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나 정체되고 소외된 상태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계는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업으로 창업을 해서 저 스스로 작게나마 삶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가고 힘든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주고 지켜준 가족에게도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 ▶ 창업을 준비하면서 현재 업종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유통업과 외식업을 했었습니다. 온전히 제 능력만은 아니겠지만 외식업 쪽에서는 많은 분에게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유난히 식도락 마니아였던 집안 환경 탓에 외식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많았고 적성도 잘 맞아서 즐겁게 일했습니다. 현재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 노력만으로 잘 할 수 있는 외식업에 다시 도전하여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저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고 가족에게도 도움도 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 ▶ 일반인에게 현재 업종의 장단점과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외식업은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적응, 고객의 요구 파악, 고객과의 소통 및 이의제기 대응,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정이상의 맛, 메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개발, 친절, 청결, 마케팅, 노무 및 세금, 행정 관련 법규, 상권분석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악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이슈나 날씨, 시즌에 따라 매출 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렵고,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비용부담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식업은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 유입과 충성 고객의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을 어느 지점까지 만든다면 안정적인 삶 이상을 만들 수도 있는 매력적인 업종입니다.

### ▶ 창업에 성공하자면 사업 운영 능력이 중요한데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식업은 지속해서 탐색과 연구, 실행해야 하는 업종이고 수익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고 위험성

을 줄여야 하므로 동향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해서 변화하는 외식업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고, 외식업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꾸준히 동향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탐색하고, 사례조사를 통해 실제 매장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시뮬레이션도 하고 관련 행정 법규 등의 변경사항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금 마련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창업지원금만으로는 창업이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 자기자본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의 운영자금,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소액이지만 그 자금을 마련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틈틈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액의 자기자본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영업하시면서 나만의 장기나 비법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고객의 요구를 잘 파악합니다. 또한, 이의제기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대응을 잘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객관리를 했었고 고객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큰돈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매뉴와 매장을 홍보하여 신규 고객의 유입을 늘리고 단골손님 유지하는 위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창업지원금만으로는 창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자본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업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자기자본금을 마련하는 과정과 방법이 어려웠고, 제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류인 사업자등록증과 통장발급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가족의 명의로도 창업지원이 가능해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가족을 설득하고 협조를 부탁하여 동의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쁨과희망은행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족의 명의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덕분에 창업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창업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영업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예전 창업 당시와는 외식업 분위기와 시스템들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태블릿 메뉴판, 키오스크 등이 인건비 상승 문제로 빠르게 적용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외식보다는 배달을 선호했었던 때와 다르게 배달은 급격히 감소하면서도 외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경제침체, 금리 인상, 타국의 전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불안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려는 고객의 소비문화가 변화되었습니다.

다음 6월호에 계속>



十 평화!!!

To 시몬 신부님께

신부님 편지 잘받았습니다. 바쁜일정에  
시간 내어 편지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매주 미사를 참여 할수있어서  
좋네요. 그전까지 그속에 한번 귀찮고 활동하며 신앙공복을  
하며 형제들과 즐거운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매주 미사통해  
참여하며 지난 죄를 고해할수있으니 행복 입니다.

하루 하루 그분과 성모님의 전구하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늘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저 스스로 돌아보며  
비록 죄인들이 모여사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죄인이나) 곳이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중입니다.

이곳 마산교구엔 신부님 및 수녀님께서 인사이동을 하셨다고 들었네요.

시몬 신부님은 연령이 있으신가요?

신부님·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도  
 못드려 죄송하네요. 인제가 사회에 복귀하면  
 어떻게든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시몬 신부님도요!!!  
 신부님의 좋은 말씀 하나 하나 세겨 들고 저장하겠습니다.  
 자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주셨는데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책과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기도하며 쉬면서 수감자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낼려고 노력중입니다.  
 신부님 다시한번 네쁘신데 답장주셔서 감사하며 큰힘이 됩니다.  
 늘 저희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 드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신부님이 즐겨신 하극되길 매일 기도드립니다.  
 건강행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또 편지할게요.

2024. 3.3. 일

요셉도임.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다 마산에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 간 요셉 형제님이 송정섭 신부님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2024년 6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 행사 알림

- 5월 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 참회와 속죄의 성당(파주)
- 5월 7일(화)~9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 · 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사
- 5월 22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5월 20일(월)~24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 · 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5월 29일(수)~31일(금) 각 교정시설 대표봉사자 야유회 / 전북 변산반도

※ 5월 6일(월) 휴일 근무로 인해 **5월 13일(월) 사무실 휴무**입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3/16~4/15)

2024년 3월~4월에는 PARK AMY YOUNGMI 소피아, 김명숙 마르셀레나, 김성혜 모데스타, 김영훈(기응), 김정선 요안나, 남순기, 문제희 소사 세실리아, 서한경 미카엘, 심재숙 아네스, 이영옥, 이정자 말가리다마리아, 이채순 마리아, 이효은 루시아, 임인순 율리안나, 정순복 헤드빅, 정재옥 수산나, 조옥선 세실리아, 지향영 소화데레사, 홍원태, 도봉동성당 강경리 아네스 외 87명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강경화 로사리아, 김명수 마리아요안나, 김연수 안젤라, 박찬길 세실리아, 신우철 미카엘, 정민규 엘리사벳, 최민숙, 최민정, 최숙희, 천호동 성당 교정사목후원회, 도봉동성당 김용국 에지디오 외 13명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 (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